2일 Market Index
코스피 2225.67 (-10.73)
코스닥 671.51 (-7.78)
금리(국고채 3년) 3.773 (+0.051)
환율(원·달러) 1272.60 (+8.1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금융] 우리금융 올해도 리스크관리 총력 08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경제력·군사력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꼽히는 중국의 올해 경제 기상도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가운데 하나였지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경제전망과 증시, 성장률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제활동 재개〉

"하반기 리오프닝 효과" VS "소비회복 쉽지 않을것"

2023 차이나 기상도

❶ 엇갈리는 경제 전망

억눌린 소비수요 2분기 후 회복
소비 증가율 6.3% 반등 가능성

저소득층 재정 상황 악화 심각
당장 소비보다 저축 더 중요해

중국이 자기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끌어내린 '제로 코로나' 고집을 꺾고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섰다. 오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도 폐지되는 등 국경까지 전면 개방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컸던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반면 준비없는 '위드 코로나'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 中 '위드 코로나' 원년…"중국이 돌아왔다"

올해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년이다. 도시 봉쇄 등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엄격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던 것이 무색하게 위드 코로나 선언한 달여 만에 국경까지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일단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했고, 4분기 들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치명율이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낮았던 점이 빠른 정책 전환에 힘을 실어줬다.

중앙금융경제위원회(CFEAC) 한위슈 사무차장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성장 위주 정책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 효과로 올해 성장세는 더 가파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반복적인 봉쇄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2분기 이후 회복되고, 지역 간 이동도 재개되면서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6.3%로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데이터 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정치는 6% 안팎으로 2년(20~21년) 평균 증가율(3.9%)을 크게 웃돌았다.

중국 당국 역시 무엇보다 내수회복이 절실한 만큼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 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연장하는 등 부양책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감염자 급증에 오히려 활동위축… 불확실성↑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의 키는 리오프닝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 지 여부다. 예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감염자 급증에 경제활동은 오히려 위축됐고, 고용 불안도 커졌다.

방역 당국의 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2억 480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중국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도시에서의 확산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2면에 계속〉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의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타이쿠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AP·뉴시스

韓기업, 초연결·친환경 미래기술 대거 출격

'CES 2023' 5일부터 美서 개막
삼성·LG·SK·HD현대 등 참석
산업계 미래 혁신 기술력 승부수

매년 초 세계 산업계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이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열리는 CES 2023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 기술로 자웅을 겨룬다.

CES는 세계 가전뿐만 아니라 IT,모빌리티 가상현실, AI, 우주 등 미래 신기술을 아우르는 전시회로 성장한 CES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맞춤형 가전으로 초연결 시대를 위한 혁신 기술을, SK와 HD현대는 각각 친환경 기술과 해양시대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주요 그룹 수장들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에 대거 참석한다.

◆삼성·LG 프리미엄 가전으로 초연결 시대 개막

LG전자가 CES2023을 통해 공개할 '씽큐 업.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가전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맞춤형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화두로 던졌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3에서 '캄테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과 사물의 초연결 생태계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 싱스 경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캄테크는 가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제품군 등 다양한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매끄럽게 연결돼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프리미엄 가전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다.

LG전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품으로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CES 2023 개막 전 'LG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 사장은 LG전자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 이즈 굿'을 주제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혁신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확장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 ▲사람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약속 등을 소개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우리경제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아야"

尹, 5부요인·경제계 신년인사회
"정부 역할 그 어느때 보다 중요
경제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5부 요인 및 국가주요 인사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나누고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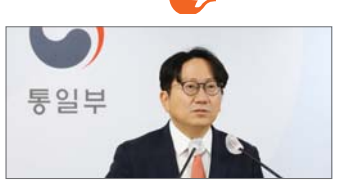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5부 요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겠다"며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정치 기득권 깨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
▲ 통일부, 김정은 딸 미사일 시찰 동행에 "관련 동향 주시" /사진 뉴시스

▲ 향군,새해 맞이 현충원 참배와 안보결의대회 개최
▲ 통일연, 北 핵위협에 "2017년 뛰어넘는 '위기의 해' 될 가능성"

▲ 한 총리, 인천공항서 방역 점검… 중국발 입국자 의무 검사 /사진 뉴시스
▲ 유승민, "중대선거구제 제안 환영… 여야 기득권 버려야"